

1920년대 잡지 『동명』(東明)의 성격과 석전(石顛) 박한영(朴漢永)의 「석림한화」(石林閒話)

민 희 주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 들어가는 말

매스 미디어(mass media)의 유형인 신문·잡지는 새로운 문명과 지식을 만날 수 있는 통로 중 하나이다. 매체에는 모든 정보와 지식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에 대한 선별의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근대시기 신문·잡지는 정보와 지식을 유통하고 선도하는 점에서 중점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신문·잡지에 어떠한 사건과 지식을 선별하여 게재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당시 보편적 사상의 흐름과 시대상황을 알 수 있고 이를 통해 지식인들이 근대를 대응하는 자세를 알 수 있다.

1910년 조선은 한일강제병합으로 일제의 무단통치 상황에 놓이게 되

주제어: 1920년대 근대문학, 『동명』, 근대매체, 근대화, 불교 담론, 석전 박한영
1920s modern literature, *DongMyung*, modern mass media, modernization,
Buddhism discussion, Sukjun ParkHanYeong

면서 참정권을 박탈당하는 한편, 언론·출판의 자유 또한 신문지법과 출판법에 의해 엄격하게 제한된다. 1919년 3·1운동 이후로 일제는 문화정책을 내세우며 조선인에게는 출판법으로만 허가되었던 잡지의 간행을 1922년부터는 신문지법으로 출판을 허가한다. 신문지법의 허가를 얻어 발간된 신문·잡지만이 정치·시사 문제를 제한적으로나마 다룰 수 있었다. 1920년에 발행한 『개벽』은 1922년 다시 신문지법으로 잡지 간행을 허가받았고, 1922년 『신생활』·『조선지광』·『동명』·『신천지』 등이 신문지법에 의해 허가를 받아 발행되었다.¹⁾ 본고에서 살펴볼 『동명』은 1922년 신문지법으로 허가를 받아 같은 해 9월 3일 최남선의 주도로 창간된 시사주보(時事週報)로, 1923년 6월 3일 통권 40호로 종간되고, 1924년 3월 31일부터는 월간지 『시대일보』로 개제(改題)되어 간행되었다.

1920년대 무렵은 제1차 세계대전이 종식되고 자유주의와 민족자결주의 원리에 따라 전후 세계질서가 재편되는 시기이며, 사회주의 담론이 본격적으로 소개되었던 시기다.²⁾ 조선 내에서는 문화주의적 방식에 의한 사회 내부의 개혁을 우선시하게 되었는데, 이는 ‘개조’라는 담론을 통해서 활발히 발산된다. 『동명』은 당시 다른 잡지와 마찬가지로 세계사적 흐름과 함께 민족과 사회전반의 개조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신지식의 일환으로 사회주의 사상을 담고 있는 글들을 번역해 게재한다.³⁾ 사

-
- 1) 신문지법과 출판법에 관한 내용과 그 전개는 김봉희(2008), 『일제시대의 출판문화: 종합잡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연구』 14집,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179-180쪽; 최덕교(2004), 『한국잡지백년(韓國雜誌百年)』 2권, 현암사, 50-51쪽 참조.
 - 2) 류시현(2007), 『1920년대 최남선의 ‘조선학’ 연구와 민족성 논의』, 『역사문제연구』 17집, 한국역사연구회, 166쪽; 서은경(2013), 『잡지 『서울』 연구: 1920년대 개조론의 대세 속 『서울』 창간의 배경과 그 성격을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46집, 우리어문학회, 294-295쪽 참조.
 - 3) 『동명』은 ‘今日의 知識’이라는 항목을 마련해서 도마쓰·키켄 原著, 三民 抄譯, 『社會主義要領』(제6호~15호)과 『社會主義의 實行可能方面』(제16호~17호)을 연재하는데, 이는 당시 신지식의 일환으로 사회주의사상을 중역해서 신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社會主義의 實行可能方面』은 일본 와세다대학(早稻田大學)의

회주의 사조의 유입에 대한 지식인들의 입장은 저마다 달랐지만 이러한 새로운 사상의 유입은 지식인으로 하여금 그들의 다음 행보를 결정짓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00년대는 사회진화론적인 인식론과 계몽사상의 유입으로 민족과 국가를 진화론적 구도에서 이야기하게 했고, 1910년대는 니체와 쇼펜하우어, 베르그송과 에머슨, 크로포트킨과 마르크스 등의 사상이 참조되고 롱펠로우나 보들레르, 그리고 투르게네프와 소로굽 등의 문학이 번역되어 유행함에 따라 민족의 문제를 사유할 때는 폐쇄적인 자민족 중심주의에 빠지지 말고 인류의 견지에서 사고해야 한다는 발상이 탄생하게 된다. 나아가 1920년대 이후는 사회주의 사상이 유입됨에 따라 사회주의와 민족주의가 공유한 인식론적 토대가 축조되었다.⁴⁾ 이러한 사상과 문물의 유입이 동시대 조선에 살고 있는 지식인의 세계관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이다. 신문물과 신지식의 유입은 신문·잡지가 중요한 매개체였고, 이러한 과정으로 신지식을 익힌 지식인들은 다시 신문·잡지를 통해 그들의 담론을 재생산하게 된다.

류시현은 “『동명』의 주도 인물들은 자본주의-민족운동, 계급주의-사회운동이라는 이분법이 아닌 ‘민족적 자립’, ‘민족적 자결’을 강조하면서 1920년대 전반기 대립 양상을 보인 민족운동과 사회운동의 일치점을 찾고자 했다.”(류시현(2007): 169쪽)고 평가한다. 1920년대 시대상황의 변화와 사상의 유입에 따라 지식인의 담론이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동명』의 글 중에 이러한 흐름에서 벗어난 논의가 있어 주목을

교수면서 일본 사회민주당을 창립했으나 금지당한 인물인 아베 이소오(安部磯雄, 1865-1949)의 논문을 번역한 것이다. 류시현(류시현(2007), 위의 논문, 167쪽)은 아베 이소오의 이름을 ‘安部幾雄’이라 표기하고 있는데 ‘安部磯雄’가 바른 표기임을 밝힌다.

4) 1900~1920년대 유입된 다양한 사상과 그에 영향을 받은 조선 지식인들의 행보는 권보드래(2009), 『진화론의 갱생, 인류의 탄생: 1910년대의 인식론적 전환과 3·1운동』, 『대동문화연구』 66집,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223-224쪽 참조.

요한다. 바로 석전(石顛) 박한영(朴漢永, 1870~1948)의 글이다. 석전은 이 시대를 살아간 한국불교의 대표적인 학승(學僧)이며 불교계의 유신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실천한 근대적 선각승(先覺僧)이었다.⁵⁾

1920년대 조선은 일제 식민지 치하에 놓여 있었고, 국제 정세는 1차 세계대전의 종식으로 새로운 세계질서를 구축하려는 상황이 진행 중이었다. 지식인들은 잡지에 세계정세와 더불어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번역하여 게재했고, 동시에 이에 영향을 받은 담론들을 맞물려 창출하고 있었다. 잡지는 이러한 복합성이 동시성을 갖고 유통되며 발산되는 장이었다. 이러한 면들을 고려해 볼 때, 특정 종교의 색을 지니지 않는 잡지를 통해, 철저하게 불교적 세계관 속에서 사유한 인물이 무엇을 말하고 유통시키려 했던 것일까를 살펴보는 일은 주목을 요한다. 「석림한화」는 글쓴이가 사상적 토대를 불교적 세계관에 분명히 두고 쓴 글로 『동명』의 주도 인물들이 창출하는 근대와는 그 결을 달리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는 보다 다양한 근대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⁶⁾ 먼저

5) 김상일(2007), 「석전 박한영의 저술 성향과 근대불교학적 의의」, 『불교학보』 46집,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3쪽.

6) 『동명』의 주도 인물들은 대부분 당시 외부에서 유입된 사상을 바탕으로 민족개조를 통한 민족자립을 강조한다. 석전은 자신의 사유체제를 시대흐름에 따라 달리 유입되는 사상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오래 전부터 한반도에 정착한 불교적 세계관 안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 부분은 『동명』 주도 인물들이 근대를 대응하는 방식과 구분 짓는 차이를 만든다. 차이는 다양성에 기여하기도 하지만 자칫하면 단발성 논의에 불과할 수 있는 한계를 낳는다.

그러나 석전은 『동명』 주간(主幹)인 최남선, 『동명』에 연재하고 있는 변영만·홍명희·이능화 등과 가까운 관계(이병주(2012), 「지계(持戒)·강설(講說)·시작(詩作)에 뛰어났던 준봉(俊峰)」, 『석전 박한영의 생애와 시문학』, 도서출판 선운사, 25쪽)였다. 특히 최남선과의 관계는 선행연구에서 밝힌 것과 같이 석전이 그에게 미친 정신사적 영향은 상당했다 할 수 있다(고재석(2012), 「석전 박한영의 시선일규론(詩禪一揆論)과 그 문학사적 의의」, 『석전 박한영의 생애와 시문학』, 도서출판 선운사, 113쪽)

선행연구의 이러한 평가를 고려해 본다면, 『동명』에 연재한 그의 글을 살펴본다는 것은 동시대를 살고 있는 이들에게 전하려고 했던 그의 정신사적 맥락이 무엇인지

『동명』의 체재와 구성을 살펴보고 그러한 구성 안에서 석전의 연재 글이 지니는 성격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2. 1920년대 초반 잡지 『동명』의 성격과 그 위상

『동명』은 크게 다섯 부분으로 구성된다.⁷⁾ 첫째, 민족에 관한 구성이다. 『동명』은 조선을 중심으로 다루면서 중국, 그리고 민족운동을 벌인 나라들에 대한 글을 다양하게 게재하고 있다. 권두 논설은 대부분 조선의 민족성에 관한 논의로 시작한다. 조선에 대한 글은 민족성을 논한 논설 형식의 글과 문화적 차원에서 조선을 이야기한 글로 구분할 수 있다. 논설 형식의 글⁸⁾은 당시 시대상황과 더불어 민족 각성과 앞으로 나아갈

를 살펴보는데 그 초석이 되므로 의의가 있다 할 수 있다.

- 7) 『동명』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두 가지 방법에서 이뤄졌다. 하나는 민족개조에 관해 살펴본 연구로 류시현(2005), 「崔南善의 ‘近代’ 認識과 ‘朝鮮學’ 研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경돈(2005), 「1920년대초 민족의식의 전환과 미디어의 역할: 『개벽』과 『동명』을 중심으로」, 『史林』 23집, 수선사학회; 류시현(2007), 「1920년대 최남선의 ‘조선학’ 연구와 민족성 논의」, 『역사문제연구』 17집, 역사문제연구소가 있다. 다른 하나는 번역에 관한 문제를 살펴본 연구로 김화선, 안미영(2007), 「1920년대 서구 전래동화의 번역과 번역 주체의 욕망: 『東明』에 소개된 그림동화를 중심으로」, 『語文研究』 53집, 어문연구학회; 동신(2011), 「양건식의 중국 문학 연구에 대한 비교문화적 고찰: 중국 속문학의 연구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이 있다. 위와 같은 연구는 『동명』에 실려 있는 기사를 선택적으로 뽑아 다른 상위의 논의를 진행하기 위한 방식으로 이뤄진 것이다. 반면 본고는 『동명』 전체의 기사를 개괄하여 『동명』이 1920년대 잡지들 중에서 어떠한 자리매김을 하려 했는지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려 한다.
- 8) 崔南善, 「朝鮮民是論」, 『동명』 제1호~4호(1922.9.3.~9.24), 제7호~13호(1922.10.15.~11.26); 薛泰熙, 「朝鮮은 오즉 朝鮮人の 朝鮮」, 『동명』 제2호(1922.9.10); 玄相允, 「現下朝鮮 青年의 心理와 一轉機의 必要」, 『동명』 제3호(1922.9.17); 學海生, 「無題錄」, 『동명』 제12호~13호(1922.11.19.~11.26); 卞榮魯, 「軟化의 傾向」, 『동명』 제15호(1922.12.10); 「時代熱과 自己省察」, 『동명』 제2권 제7호(1923.2.11); 「朝

길을 제시하는데 이는 ‘개조’의 문제로 이어진다. 문화적 차원에서의 접근은 문화사⁹⁾ · 언어¹⁰⁾ · 조선시대 도자기¹¹⁾ · 종교¹²⁾ 등 다양한 방면에서 다루고 있다. 중국과 관련된 글들은 중국의 당시 상황¹³⁾과 인물¹⁴⁾ · 문자¹⁵⁾ · 문학론¹⁶⁾을 다루고 있다. 또한 『동명』에서는 중국의 신문화만

鮮사람 朝鮮것, 『동명』 제2권 제9호(1923.2.25); 「오죽 出發點이 다를뿐, 『동명』 제2권 제15호(1923.4.8); 「結局은 人格本位, 『동명』 제2권 제17호(1923.4.22); 「虛榮의 市, 『동명』 제2권 제20호(1923.5.13)(본고 ‘2. 1920년대 초반 잡지 『동명』의 성격과 그 위상’에서 『동명』에 실린 기사를 다룰 시에는 잡지 이름과 발행일을 제외하고 저자, 기사명, 호수만 표기하기로 한다).

- 9) 崔南善, 「朝鮮歷史通俗講話」, 제 3호~11호, 제13호~16호, 제2권 제4호~8호, 제2권 제10호.
- 10) 權憲奎, 「朝鮮語文의 淵源과 그 成立」, 창간호.
- 11) 柳宗悅, 「李朝 陶磁器의 特質」, 제 7호~10호; 淺川伯教, 「李朝陶器의 史的考察」, 제 11호~13호, 제 15호~16호.
- 12) 종교와 관련된 글은 종교에 따라 3가지로 구분된다. 불교 관련 글은 石巔山人, 「石林閒話」, 제5호~7호, 제9호~13호; 林錫珍, 「朝鮮佛教의 新制度」, 제2권 제4호; 李能和, 「朝鮮神教源流考」, 제2권 제8호~제10호, 제2권 제13호, 제2권 제15호~20호; 「平等·圓滿·和合의 根本義를 忘却한 佛教徒」, 제2권 제10호 등이 있고, 기독교 관련 글은 「大邱長老教會의 紛擾에 關하여」, 제2권 제17호; 李能和, 「朝鮮基督教史」, 제2권 제21호~23호; 金智煥, 「現代와 信仰」, 제2권 제22호~23호가 있다. 유교관련 글은 金稔濟, 「儒敎와 現代」, 제11호; 薛泰熙, 「金稔濟氏의 「儒敎와 現代」를 讀하고」, 제2권 제5호~6호; 金稔濟, 「薛泰熙氏의 儒敎論에 對하여」, 제2권 제11호 등이 있다.
- 13) 壁上觀人, 「孫文과 陳炯明」, 제2호; 「悲觀할 것 없는 青年中國」, 제2호; 「中國最近의 財政狀態」, 제4호; 「中國의 現勢」, 제12호~17호; 「中國政界를 震盪하는 大旋風」, 제13호; 李允宰, 「中華民國 議會 小史」, 제2권 제2호~5호; 「走馬燈가튼 孫派의 勝敗」, 제2권 제6호; 李允宰, 「北京大學을 中心으로 한 學界와 政界의 大衝突」, 제2권 제9호; 「最近中國의 婦人運動」, 제2권 제10호; 李允宰, 「民衆革命化하는 中國의 學生運動」, 제2권 제23호.
- 14) 白華, 「北京梨園의 一雙名花」, 제3호; 「中國藝壇의 名星 梅蘭芳」, 제9~10호; 「現今 中國藝園의 巨匠 吳昌碩老人」, 제12호; 「有號無國의 宣統帝」, 제14~16호.
- 15) 李允宰, 「中國에 새 文字」, 제10호~11호.
- 16) 李允宰 抄譯, 「胡適氏의 建設의 文學革命論」, 제2권 제16~19호; 白華, 「中國 胡適 新詩談」, 제2권 제20호~23호.

을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1923년 호부터는 원나라 2대 희곡 중 하나인 『도화선전기』(桃花扇傳奇)가 번역되어 연재된다.¹⁷⁾ 이러한 면을 고려해 보면 『동명』은 중국을 조선에 못지않게 중요한 층위에서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⁸⁾ 다른 국가에 관한 글은 민족운동을 벌이고 있는 국가에 한정하여 민족운동의 과정¹⁹⁾과 그와 관련된 특정인물²⁰⁾을 다루고 있다.

17) 孔云亭 作, 梁白華 譯, 『桃花扇傳奇』, 제2권 제2호~11호, 제2권 제15호~22호. 동신은 앞의 논문에서 양건식의 중국문학 연구 및 번역 활동이 일본의 중국문학 연구와 연관 가능성이 있음을 제기하고, 『동명』에 실린 양백화의 『도화선전기』가 시오노야온(鹽谷瀧)의 『국역도화선전기』를 수용했음을 각각의 텍스트의 대비를 통해서 밝혔다. 그는 “양백화의 『도화선전기』가 『동명』 19호~39호”(동신, 앞의 논문, 52쪽), 즉 제2권 제2호~22호에 걸쳐 연재하고 있다고 했는데 필자가 조사한 바로는 『도화선전기』는 『동명』 제2권 제12호~14호에는 연재되지 않고, 제2권 제2호~11호와 제2권 제15호~22호에 걸쳐 연재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바로 잡는다.

18) 『동명』은 타블로이드판 20면으로 간행되었다. 첫 면은 표지이고, 두 번째 면과 뒤의 두 면(19면과 20면)은 광고로 구성되어 있다. 광고를 제외하고 기사를 실을 수 있는 부분은 총 16면에 해당한다. 많지 않은 지면에 거의 매화에 걸쳐서 중국에 관한 글을 빠짐없이 싣고 있다. 단지 양적인 면에서만이 아니라 기사의 구성면에서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동명』은 중국문학에 관한 글을 다룰 때, 당시 잡지 『개벽』과 마찬가지로 후스가 주장한 신문학론을 번역하고, 중국 정세와 민족운동에 관한 글을 소개한다. 반면 중국에 관한 글을 다룰 때, 『개벽』과 달리 『동명』만의 독특한 점은 신문학만을 번역해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중국 고전작품인 『도화선전기』를 번역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시각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1920년대 잡지에 대해 보다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19) 세계 민족운동은 세계적으로 어떤 민족운동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하는 글(『光華가 漸大하야지는 新月旗』, 제10호~12호)과 특정 국가나 민족 혹은 인종 그리고 인물을 집중적으로 기사화하면서 민족운동을 소개하는 글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는 아일랜드(『腥血과 恐怖에 싸인 愛蘭』, 제2호~7호; 『愛蘭의 文藝復興運動』, 제2권 제16호)·몽고(李允宰, 『蒙古民族의 獨立運動』, 제14호~17호)·이집트·필리핀의 민족운동의 전개 과정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민족 또는 인종은 유태인(『驚歎할 黃金力과 團結力으로 實現되려하는 選民의 聖國』, 제13호~15호)과 흑인(『白意가 赤熾하는 黑國』, 제16호~17호; 『白人을 震駭하는 黑禍의 爆彈』, 제2권 제13호)을 다루고 있다(관련 기사 목록은 본고 각주 37) 참고).

20) 인물은 『民族運動의 先驅者』(제9호)에서 인도의 간디, 터키의 케말파샤, 이집트의 자그룰 파샤, 아프리카의 마카스가베의 인물과 관련하여 자국의 독립 활동과 그

둘째, 개조에 관한 구성이다. 개조는 ‘나라 안’과 ‘나라 밖’으로 구분해서 연재한다. 나라 안에서 개조해야 할 대상은 민족과 가정이다. 민족을 개조하는 부분은 위에서 언급된 논설들이 주를 이루고, 가정을 개조하는 하는 글은 가정을 개조하는 방법과 더불어 어린아이를 기르는 법으로 나눠 소개하고 있다.²¹⁾ 나라 밖의 개조안은 허버트 웰스(Herbert George Wells, 1866~1946)가 미국 등에서 발표한 강연초고로 쓴 논문인 「세계개조안」(世界改造案)²²⁾을 번역하여 연재한다. 개조해야 할 것은 조선 민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줌으로써 ‘개조’의 문제는 민족의 문제만이 아닌 인류 보편에 해당한다는 인식을 드러내는 부분이다.

셋째, 시사에 관한 구성이다. 이 부분은 특정 기사·논설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부분과 일주일 동안의 사건을 대략적으로 다루는 부분으로 구성한다. 특정 기사·논설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부분은 국내 사건과 국외 사건으로 나눠 게재 하는데 몇 호에 걸쳐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기도 한다.²³⁾ 일주일 동안의 대략적인 사건을 다룬 글은 첫 호부터 제5호까지

의미를 개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간디는 별도의 지면을 할애해서 다루고 있는데(一波生, 「孟買法庭에 立한 甘地」, 제8호), 미국의 간디옹호자의 논문(「基督과 『간디』」, 제2권 제5호~8호)을 번역하여 몇 회에 걸쳐 소개하기도 한다. 또한 필리핀이 스페인의 지배를 받을 때 공개처형을 당한 애국자 호세 리살(José Riza, 1861~1896)의 생애(「比律賓의 愛國者 『피사알』 博士의 一生」, 제2권 제11호~12호)와 흑인 부커 T. 워싱턴(Booker T. Washington, 1856~1915)의 민족활동(「黑偉人 뿌커·워싱턴」, 제2권 제13호)을 소개한다.

- 21) 「아해는 가명의 복두성」, 창간호; 「어썬케하면 형제간 싸움을 안케할가?」, 제2호; 「가명은 어썬케 개량할가」, 제4호~16호, 제2권 제3호~7호, 제2권 제9호, 제2권 제11호, 제2권 제13호, 제2권 제15호; 「어린아이 기르는 법」, 제16호, 제2권 제2호~11호, 제2권 제13호, 제2권 제15호.
- 22) 에취·지·웰스, 「世界 改造案」, 제2권 제17호~21호.
- 23) 국외의 사건을 다룬 글은 「米國 二大 罷業의 經過」, 제3호; 「大連會議에서 長春會議 까지」, 제6호, 제8호; 「近東會議의 開催經路」, 제12호; 「英國總選舉의 戰績」, 제13호; 「最高絶頂에 立한 近東會議」, 제15호; 「前途艱難한 倫敦會議」, 제16호; 「蒙古에 赤化한 共和國建設」, 제17호; 「治外法權問題로 近東會議破裂」, 제2권

『사회』(社會)면을 두어 국내 소식은 ‘ 시내’(市內)와 ‘지방’(地方), 국외 소식은 ‘구미시사’(歐米時事) · ‘근동극동’(近東極東) · ‘적색세계’(赤色世界) · ‘동경소식’(東京消息)으로 나눠 다룬다. 그러나 제6호에서는 『사회』면은 명시하지 않고 기존 항목만을 유지한 채 기사를 게재하더니, 7호부터는 『내외시사일기』(內外時事日記)라는 항목 아래, ‘조선’ · ‘일본’ · ‘중국’ · ‘각국’으로 분류한 채 시사사건들을 게재한다. 또한 6호까지는 2면에 걸쳐 다른 분량이 7호부터는 한 면의 5분의 2 정도로 축소된다.

넷째, 신지식에 관한 구성이다. 『동명』에서 신지식은 사회주의 사상과 과학 지식으로 대표된다. 사회주의 사상은 제17호 까지 『금일(今日)의 지식(知識)』이라는 항목으로 사회주의와 관련한 글을 연재하고,²⁴⁾ 제2권부터는 『금일(今日)의 지식(知識)』이라는 항목은 사라지고 기사 제목만을 붙여 연재한다.²⁵⁾ 과학지식은 당시 새로운 발명을 소개하는데,²⁶⁾ 제3호부터는 『과학적 새유희』라는 부분을 만들어 그림과 함께 독자들이 과학 실험을 간단하게 따라해 볼 수 있도록 기사를 구성하고 있다.

다섯째, 문학에 대한 구성이다. 문학은 소설²⁷⁾ · 시²⁸⁾ · 수필²⁹⁾ · 번

제7호; 『威信이 掃地한 國際聯盟』, 제2권 제8호; 『間島同胞의 國籍脫離運動』, 제2권 제9호; 『廢棄를 宣言한 二十一個條와 朝鮮』, 제2권 제12호; 鼎言生, 『國際法上の 佛國의 『루일』 占領觀』, 제2권 제13호~14호 등이 있다.

24) 도마쓰 · 커깅 原著, 三民 抄譯, 『社會主義要領』, 제6호~15호; 『레닌婦人的 活動』, 제13호; 『社會主義의 實行可能方面』, 제16호~17호.

25) 에드워드 · 셰라미 原著, 欲鳴生 抄譯, 『理想의 新社會』, 제2권 제2호~11호; 『偉대한 作家의 본 偉대한 實行家-고르키의 레닌論』, 제2권 제19호; 아돌프 · 요페, 『勞農 露西亞의 新舊經濟政策』, 제2권 제19호~22호; 알렉산더 · 아이 · 나자로프, 고르키, 『兩極端의 中間-灰色』, 제2권 제20호; 『國家社會主義를 駁한 露西亞』, 제2권 제21호~22호.

26) 寒圃生, 『科學知識』, 제3호; 『科學界에 研究의 焦點 無發動機 飛行機』, 제2권 제6호; 『科學文明의 絶頂인 無線電話는 이런 것 일세』, 제2권 제15호~18호; 『最新한 科學의 進歩』, 제2권 제23호.

27) 白華, 『빨래하는 女人』, 창간호~17호, 제2권 제2호, 제2권 제4호~13호; 想涉, 『E先生』, 제2호~13호, 제15호; 김동인, 『笞刑』, 제16호~17호, 제2권 제2호, 제2권

역³⁰)·그림동화³¹)·비평론³²)·만화³³) 등 다양한 장르로 분화되어 연재된다. 1922년 간행된 호들의 문학 영역에서는 소설과 시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1923년 발행호부터는 그림동화가 매호 꾸준히 번역되고 감상기와 같은 비평부분이 실리며, 무엇보다 외국 소설을 다양하게 번역된다. 1923년 첫 호부터는 『문예』란을 두어 문학작품들을 게재하지만, 호를 거듭하면서 이 항목을 일정하게 두며 발행한 것은 아니었다. 1922년 일정한 분량을 유지하며 연재된 창작소설은 1923년 첫 호를 제외하고는 그 분량이 점차 줄어들어 김동인의 『태형』(答刑)을 끝으로 제2권 18호부터는 실리지 못하고 있다. 창작소설의 부재는 외국소설 혹은 수필·동화의 번역으로 문예의 분량을 채워진다. 창작소설의 부재로 인하여 외국작품의 번역이 더욱 다양해진 것이다.

『동명』은 1922년 12월 14일과 1923년 1월 1일에 발간된 호는 각각 크리스마스이브, 새해라는 특별한 의미로 인해 특집호 적인 성격을 갖는다. 크리스마스이브인 1922년 12월 14일에 발간된 제17호는 ‘천사(天使)의 합창(合唱)’이라는 그림을 소개하면서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기사를 다루고 있다. ‘천사의 합창’은 얀 반 아이크(Jan Van Eyck, 1390~1441)가 그림 ‘헨트 제단화(Ghent Altarpiece)’의 한 부분으로 네덜란드 회화 중에

제4호~6호, 제2권 제17호; 稻香, 『銀貨·白銅貨』, 제2권 제1호; 想涉, 『죽음과 그 그림자』, 제2권 제3호; 閔牛步, 『晩餐』, 제2권 제6호.

28) 卞榮魯, 瞬星, 牛步 등의 작가들이 있다.

29) 羅蕙錫, 『母된 感想記』, 제2권 제1호~4호.

30) 여든셋 번역, 『옥수수』, 제3호; 여든셋 번역, 『젓한방울』; 모오파산, 여든셋 번역, 『모나코죄수』, 제5호; 孔云亭 作, 梁白華 譯, 『桃花扇傳奇』, 2권 2호~11호, 제2권 제15호~22호; 코오난·도일, 『告白』, 제2권 제5호~7호; 안톤·체오프, 『瑞典성냥』, 제2권 제8호~12호; 모오리스·루브엘, 『忘却』, 제2권 제13호.

31) 제2권 제2호~23호.

32) 百結生, 『觀念의 襤褸를 버는 悲哀: 羅蕙錫女史의 『母된 感想記』를 보고』, 제2권 7호; 羅蕙錫, 『百結生에게 答함』, 제2권 제12호.

33) 千里駒, 『漫畫 그리는 法』, 제2권 9호~22호.

서도 손꼽히는 명작이다. 이 호에서는 크리스마스의 유래와 구세주라고 불리는 인물에 대한 소개,³⁴⁾ 소설 『크리스마스의 꿈』·『크리스마스의 각씨』를 번역³⁵⁾해서 게재하고 있다.

1923년 새해를 맞이하여 『동명』의 편집자들은 ‘신년(新年)으로써 새로운 기회(新幾回)를 삼는다’³⁶⁾를 신조로 삼아 잡지 구성과 내용면에서 1922년에 발간된 잡지들과는 차이를 만들어 발행한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과 같이 1923년의 잡지는 1922년 보다 문예 방면에서 창작품은 감소하게 되면서 외국작품의 번역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또한 1923년에 발간된 잡지는 민족운동을 일으킨 국가, 혹은 민족·인종을 집중적으로 다루는데 민족운동의 전개 과정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주요 인물에 대해 소개를 하고 관련 문학작품까지 다루고 있다.³⁷⁾ 문학작품은 초역(抄譯)

34) 「天에는 榮華, 地에는 平安, 人에는 歡喜되신 救世主」, 제17호.

35) 데토레아·치러트 著, 광명을 찾는사람 翻譯; 「『크리스마스』의 꿈」, 제17호; 카아린 嬢, 「『크리스마스』의 각씨」, 제17호.

36) 「今日로 始하야, 自己로 始하야」, 제2권 제1호.

37) 제2권 11호·12호는 필리핀에 대한 기사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이들 호에서는 필리핀 혁명과 필리핀 민족주의의 사상적인 기반이 된 인물인 호세 리살의 생애(「比律賓의 愛國者 『피사알』 博士의 一生」, 제2권 11호)을 다루면서 필리핀 제도의 정치조직(「米國統治下의 比律賓」, 제2권 11호)과 독립문제(「獨立運動 過中の 比律賓의 過去及現在」, 제2권 11호; 「比島의 政治組織과 獨立問題」, 제2권12호) 그리고 사회 풍속(「比律賓의 안악네 이야기」, 제2권12호)에 관한 기사를 다룬다.

제2권 제13호에서는 흑인운동(「白人을 震駭하는 黑禍의 爆彈」, 제2권 제13호)을 다루면서 특정 인물인 부커 T. 워싱턴의 활동(「黑偉人 『부커』 워싱턴」, 제2권 제13호)과 흑인 문학(「『속임업』의 黑人小說」 바츠아라의 梗概」, 제2권 제13호)을 함께 게재한다.

제2권 15호에서는 이집트의 국민운동에 대한 기사(「埃及의 國民運動」)를 다루면서 이집트 여왕 클레오파트라에 관한 이야기(「클레오파트라 女王의 一生」)와 이집트의 문화와 풍속(「埃及의 文化와 古代風俗」)을 게재한다. 제2권 제16호에서는 아일랜드의 문예부흥운동(「愛蘭의 文藝復興運動」)을 다루면서 아일랜드 작가들의 작품을 번역해서 소개한다. 소설은 클레멘트 쇼터(Clement Shorter, 1857- 1926)의 「靈牛」, 희곡은 로드 던세이니(Lord Dunsany, 1878-1957)의 「번쩍이는 門」 등을 번역해서 게재하고 있다.

을 하거나 작품의 성격을 개괄하여 다룬다. 민족운동을 다루면서 문학작품까지 소개하는 이러한 배치는 당시 시대적 경향과 함께 살펴보아야 할 측면이다.

1920년대는 민족개조론과 나아가 인류의 개조론이 성행하였고 사회주의 사상의 유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러한 시대에 발행된 『동명』은 시대상황에 부합하는 기사들을 다뤘고 문예방면으로는 창작소설과 창작시가 꾸준히 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제2권 18호부터는 창작소설이 실리지 못하고 있는데, 이 부재는 외국작품 번역의 다양성을 창출한다. 『동명』은 1920년대 종합잡지를 표방하려 했던 것이다. 이러한 잡지의 구상안에 불교적 세계관 아래서 사유하는 석전의 글이 실린다. 당시 시대의 흐름을 선도하며 신지식과 신문물을 받아들이는 잡지라는 근대 매체의 속성과 철저히 불교적 세계관 아래에서 사유하는 석전이라는 글쓰이의 특징, 그리고 특정 종교 색채를 갖지 않는 독자, 이 구도는 다른 잡지에서는 보기 드문 배치이다. 또한 이러한 구도는 당시 『동명』이 유통하고자 하는 지식과도 다른 측면에서의 시선으로 다양한 근대 창출의 한 단면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3. 석전의 불교적 시선과 근대와의 만남

석전은 『동명』에 「석림한화」(石林閒話)와 「춘언」(春言)을 석전산인(石顛山人)이라는 필명으로 연재한다.³⁸⁾ 『동명』에 실린 석전의 글은 3가지 담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무엇이 부처인가’, ‘부처의 가르침이 인생에 필요한 것인가’와 당시 ‘불교계의 현황과 그 현황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그것이다. 그가 ‘무엇이 부처인가’라는 물음을 통해 연재를 시작하는 것

38) <표 1> 『동명』에 실린 석전의 연재 글.

은 『동명』의 독자를 고려한 담론 배치라 할 수 있다. 당시 사회에서 부치는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염세주의와 귀신들을 위해서 가르침을 세웠다³⁹⁾고 평가받는다. 석전은 ‘무엇이 부처인가’를 먼저 논하면서 이러한 인식이 잘못된 것임을 밝히고, 나아가 독자들을 선승관(禪乘觀)의 초입

권호	발행일	제목	필자
제5호	1922.10.01	「石林閑話: 如何是佛인가 【上】」	석전산인 (石顛山人)
제6호	10.08	「石林閑話: 如何是佛인가 【中】」	〃
제7호	10.15	「石林閑話: 如何是佛인가 【下】」	〃
제9호	10.29	「石林閑話: 佛敎가 人生에 必要한 것이요 【上】」	〃
제10호	11.05	「石林閑話: 佛敎가 人生에 必要한 것이요 【中의一】 二.聖靈과 科學 【一】」	〃
제11호	11.12	「石林閑話: 佛敎가 人生에 必要한 것이요 【中의二】 二.聖靈과 科學 【二】」	〃
제12호	11.19	「石林閑話: 佛敎가 人生에 必要한 것이요: 【中의三】 二.聖靈과 科學 【三】」	〃
제13호	11.26	「石林閑話: 佛敎가 人生에 必要한 것이요 【下】 三.世間과 出世」	〃
제2권 제2호	1923.01.07	春言 白雲은 空山에가득커늘 陽春은 말슴뿐이아닌가	〃

『동명』 제2권 제2호에는 새해를 맞이해서 각계의 인사들에게 ‘조선을 새로 태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변을 실고 있다. 석전은 ‘종교계’에서 李昇薰, 韓龍雲 등과 함께 종교인의 관점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불교계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의 연장선에서 논의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별도로 <표 1>에 항목화 하지는 않았음을 밝힌다.

- 39) 石顛山人, 「石林閑話-如何是佛인가 【下】」, 『동명』 제7호, 1922. 10.15, 13쪽, “一, 佛陀는 神道說敎元 元祖라 梵天廟와 가티 偶像을 崇拜케하야, 信徒의 禍福運命을 禳禱케 하얏스니 迷信者의 窟宅이라하며, 二, 佛陀는 消極의 厭世主義로 立敎 하엿스즉, 敎徒는 晦迹逃空의 淵藪로서, 其實은 病國蠹民하는 分利者의 一流라 하며 三, 佛陀 先亡靈魂을 爲하야 立敎함이라, 人生의 現前功利에는 無所用인즉, 佛敎는 幽靈의 敎라하며.”(띄어쓰기는 필자가 현대 맞춤법에 맞게 고쳤음을 밝힌다. 뒤의 「석림한화」 인용문도 마찬가지다).

으로 끌어들이고자 하는 의도를⁴⁰⁾ 보이는 것이다.

3.1. 내면으로의 몰입과 ‘본래자아’의 발견

석전은 먼저 불(佛)은 우리말로 말하면 ‘부처’이고 뜻으로 풀이하면 ‘깨친이’이라고 기술한 후 무엇이 ‘부처’ 즉, ‘깨친이’인지에 대해서 크게 ‘간화’(看話)와 ‘설화’(說話)라는 두 범주로 분류하여 설명한다. 그는 일반 독자에게 생소할 수 있는 용어들을 하나씩 설명하며 논의를 진행한다. ‘간화’는 자신이 지금까지 알고 있다고 인식했던 모든 관념들을 끊고 자신이 찾고자 하는 것을 궁구하는 방법이라고 한다.⁴¹⁾ 오직 ‘무엇이 부처인가’라는 물음을 갖고 자신의 내면을 통해 끊임없이 몰입해 나간다면 어느 날 자신의 생각이 온전히 밝아져 본래부터 그러한 불성지(佛性地)에 계합하게 된다. 그는 이것을 ‘見性成佛’이라 말하고 있는데, 이는 곧 ‘본래자아’⁴²⁾의 발견이라 할 수 있다.

40) 石頭山人, 『石林閒話-如何是佛인가【上】』, 『동명』 제5호, 1922.10.1, 12쪽, “그 중에 『如何是佛인고』하는 一段公案부터 抽象하게 됨은, 詩人觀의 範圍를 超然하여 冷湫湫하고 沒滋味한 禪乘觀初門에 引入하려 함입니다.”

41) 石頭山人, 『石林閒話-如何是佛인가【上】』, 『동명』 제5호, 1922.10.1, 10쪽, “第一段 『話頭』란 것은 盡平生의 所見所聞하였든 千思量萬分別을 다시 提起치말고, 單單的의 어셔한 것이 이 부터인고 하기를, 脊梁骨을 確堅하고 慈悲眼을 微開하여, 日用動靜에 間斷업시 一念不昧하여가면, 月之日에 自己의 一念이 圓淨하여 本天然佛性地에 들어 契合하게되는 것을 『見性成佛』이라 稱합니다.”

42) 이철호는 “내향적 인간의 영적 자각은 근대적 자아의 탄생과 동일한 사건이다. 자기 내부에서 창조적인 발전과 자아 완성을 위한 엄청난 잠재력을 발견한 개인이야말로 근대적인 요건에 부합하는 인간형이다.”(이철호(2006), 『한국 근대문학의 형성과 종교적 자아 담론: 靈, 生命, 新人 담론의 전개 양상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31쪽)고 한다. 석전은 개인이 ‘무엇이 부처인가’라는 물음을 통해서 내면으로 몰입해 갈 때, 본성을 깨쳐 깨달음을 이룬다고 했다. 이는 개인의 ‘영적 자각’이라는 말로 환언할 수 있을 것이다. 석전이 말한 선종용어인 ‘견성성불’은 영적 자각을 통해 발견되는 대상이므로 ‘자아’라는 용어로 통용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석전이 말하는 자아는 개인에게 본래부터 내재한 자아이며 그는

‘설화’의 하위 항목에서는 ‘진공’(眞空)과 ‘묘유’(妙有)의 개념을 들어 ‘무엇이 부처인가’를 말하고 있다. 석전은 부처를 ‘묘유’ 곧, ‘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마음이 있는 유정물은 모두 부처라고 하는데, 그의 통찰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석전은 묘유의 범주에서 ‘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부처란 불타는 물론 자연상태의 모든 것, 나아가 인간이 만들어낸 의식적인 것까지도 모두 ‘부처’라 하고 있다.⁴³⁾ ‘간화’에서 ‘부처’란 ‘본래자아’라 했다. 석전이 말하는 ‘부처’ 즉, 본래자아란 자연과 계합하는 것만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관념까지도 관통하여 존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석전은 여러 방면에서 ‘무엇이 부처인가’를 논한다. 그 중, ‘설화’의 범주로 분류해 놓은 ‘이상’(理想)의 하위 항목 중 하나인 ‘의리(義理)의 석명(析明)’에서 부처란 ‘마음(心)’이라고 말하고 있다.⁴⁴⁾ 이 부분은 문답형식을 통해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데, 그는 ‘마음’이 곧 ‘부처’라면 오직 참

사유를 통해 이러한 자아를 찾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자아’라는 용어와는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근대 연구에서 통용되는 ‘자아’라는 용어와 석전이 말하고 있는 문맥을 고려해서 ‘본래자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또한 이철호는 위 논문에서 “변영만이 동시대의 다른 계몽적 지식인들과 달리 인간의 내면적, 심성적 측면을 중시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면, 양명학의 영향도 충분히 짐작해 봄직하다”(이철호: 36쪽)고 평가하고 있는데, 본고에서 언급한(각주 6) 석전과 변영만의 교류를 참고한다면 ‘마음(心)’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불교를 영향을 제외할 수 없다. 이는 보다 면밀한 연구가 필요한 부분임으로 본고에서는 간단히 언급만 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고자 한다.

- 43) 石頭山人, 『石林閑話-如何是佛인가【中】』, 『동명』 제6호, 1992.10.8, 14쪽, “佛이란 것을 만일 妙有로 보면, 佛陀만 佛이 아니라, 무릇 有心者이면 모다 佛이란 것이요, 다시 濶一步하면 有心者即有情數에 限할 뿐 아니라, 『春山疊亂靑이오 秋江漾虛碧』이란것과 『鶯黃柳綠이머 鶴白松鬱』이 모다 그것이며, 『麻三斤이머 乾屎橛』이, 곳, 그것이며 『十字 街頭의懸羊頭·賣狗肉』이 곳, 그것입니다.”
- 44) 石頭山人, 『石林閑話-如何是佛인가【中】』, 『동명』 제6호, 1992.10.8, 14쪽, “復次に 義理의 析明 이을시다. 어서한 것이, 이 부터인가하면, 佛敎學者는 반듯이 『心』이라 하리이다.”

된 마음(眞心)만이 있어야 하는데 그 마음에는 참된 마음만이 아니라 망심(妄心)이 함께 존재함을 묻는다.⁴⁵⁾ 이에 석전은 경론(經論)에 있는 개념을 인용하여 설명하고 있다.⁴⁶⁾ ‘마음’에는 ‘진심’과 ‘망심’이 있다. ‘진심’에는 ‘변하지 않는 것’(不變)과 ‘인연을 따라 변하는 것’(隨緣)이 있고, ‘망심’에는 ‘실체가 본래 공한 것’(體空)과 ‘일이 이루어 짐’(成事) 두 가지가 있다. 진심의 불변과 망심의 체공은 ‘진여문’(眞如門)을 이루고, 진심의 수연과 망심의 성사는 ‘생멸문’(生滅門)을 이룬다⁴⁷⁾고 한다. 경론에 근거하면 진심 또는 망심만으로는 세상의 어떠한 현상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때문에 중생뿐만이 아니라 부처의 마음에도 진심과 망심이 함께 존재하는 것이다. 석전은 그렇다면 무슨 이유로 이론상에는 본래부처(本來成佛)라는 말이 있어 생사(生死)와 열반을 꿈을 꾸는 것과 같다고 했는지를 반문한다. 그러나 석전은 그것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하지 않는다. 다만 경론의 말을 인용할 뿐이다.⁴⁸⁾

45) 石頭山人, 『石林閑語-如何是佛인가 【中】』, 『동명』 제6호, 1992.10.8, 14쪽, “衆生一念이 곳 부터인가? 佛일 것 가트면, 어찌하야 純眞佛로는 顯現치 못하고, 無明妄念이 作主하얏는가? 짜답이 잇다하면 妄念이라 못한다 하지마는, 本空하디는 妄性이 宇宙人生에게 棼히인 것은 何故인가? 然則衆生心이 本來成佛이란 것도 自認키도 어렵습니다.”

46) 마음에는 ‘진심’과 ‘망심’이 있어 ‘진여문’과 ‘생멸문’을 이룬다는 개념은 마명의 『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 규봉의 『선원제전집도서』(禪源諸詮集都序) 등에서 언급되어 있다.

47) 石頭山人, 『石林閑語-如何是佛인가 【中】』, 『동명』 제6호, 1992.10.8, 14쪽, “經論의 所說을 依하건대 眞中에 不變과 隨緣과의 二義가 잇스며, 妄中에 體空과 成事와의 二義가 잇슴으로, 眞의 不變과 妄의 體空과는 連하야, 眞如門이 되었고, 眞의 隨緣과 妄의 成事와가 連하야, 生滅門이 되었스나.”

48) 石頭山人, 『石林閑語-如何是佛인가 【中】』, 『동명』 제6호, 1992.10.8, 14쪽, “대개, 佛祖常談에는 무릇 衆生이 無始已來에 一眞性을 迷하야 四生에 流轉하다가, 反眞할 機緣을 得遇하야, 心地가 開通한 後에야 大度萬行을 歷修하고, 妙覺을 圓成하지 아니한 者가 無하다 하엿습니다. 그러하면 最初覺性을 迷함으로부터, 三細과 六麤를 妄起하야, 三業을 恒造한 結果로, 苦樂에 自縛한것을 『順流門』이라 稱하고, 衆生一念의 頓悟로부터 三空을 닦거 三賢과 十地를 지내어 妙覺에 至한것을

석전은 ‘이론상에 본래성불이 무슨 이유로 있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해주기보다는 질문하는 말이 성립될 수 없는 상황만을 제시한다. 이 상황에서 독자는 딜레마(dilemma)에 빠지게 된다. 그는 중생심이 본래성불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였는데, 이 글을 읽는 독자가 석전의 문제제기를 따라가면 경론의 말은 틀린 것이 되기 때문이다.⁴⁹⁾ 같은 것을 보아도 개인 각각이 느끼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석전이⁵⁰⁾ 독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정확한 답이 아니라, 독자를 위와 같은 딜레마에 빠지게 함으로써 독자 각각이 ‘부처란 과연 무엇인가’를 스스로 생각해 보도록 하는 데에 있었던 것이다.

『동명』을 중심으로 한 당시 조선 지식인들은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는데 앞서 필요한 것은 조선인의 민족성을 개조하는 일이라고 보았다. 민족성은 개인의 차원에서 개조하는 것만이 아니라 민족의 차원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하며, 이것은 ‘인류 개조’로 나아가는 발판임을 역설하고 있다. 그러나 석전은 개인 스스로가 ‘무엇이 부처인가’라는 물음을 통해 내면으로 몰입하여 ‘본래자아’를 발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본래자아’를 발견하는 과정은 외부문물을 통해서 이뤄지는 것이 아닌 개인의 사유를 바탕으로 이뤄지는데 석전은 무엇보다 개인의 사유 능력으로 찾아가는 ‘본래자아’의 발견을 중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反流門』이라 稱하나니, 順流와 反流와가, 모다 生滅門에 變化出沒하는 相이오, 眞如門은 그 中에 融攝할뿐입니다.”

- 49) ‘본래성불’은 『대방광원각수다나료의경』(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에 나와 있는 말로, 이 경전의 핵심 내용이라 할 수 있다.
- 50) 고재석은 석전을 “『유심은 즉 금강산이 아닌가』에서 사물은 스스로 자성(自性)일 뿐이지만 해석은 구구한데, 이는 금강산은 하나지만 탐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느끼는 감회와 풍정이 각자 달라 그런 것과 같다고 한다”(고재석(2012), 133쪽)고 언급한 바 있다.

3.2. ‘본래자아’의 발견과 지금, 여기에서의 실천

석전은 『석림한화-불교가 인생에 필요한 것이요』에서 독자로 하여금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가’에 대한 사유의 계기를 이끌어내고 있다. 그는 먼저 우리의 인생은 본래부터 그러한 것인데 불교가 인생에 필요한 것인지를 묻는다. 이에 석전은 상근기(上根機)와 하근기(下根機)로 나눠 답한다. 먼저 상근기로 답하는 부분이다. 석전은 ‘복숭아는 붉고, 오얏은 희고, 장미는 자주빛을 동군에게 물어보아도 알지 못한다고 하네’라는 시를 통해서 인생은 본래 자연한 것인데 그것이 불교와 어떤 관련이 있겠느냐며 반문하고 있다.⁵¹⁾ 여기서 독자는 인생은 불교와 관련 없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이는 표면적인 이해고, 석전의 의도를 알기 위해서는 그 문맥너머의 이치를 찾아야 한다. 그는 질문에서 말한 ‘부처가 있는 세계’와 ‘부처가 없는 세계’는 언어적 구분일 뿐 이러한 구분을 넘어설 때에 참된 부처(眞佛)가 나타난다고 한다. 이 공간은 ‘부처다’, ‘불교다’, ‘인생에 필요하다’, ‘인생에 필요하지 않다’라는 언어적 구분을 여윈, 곧, 형식적·물질적 구분을 떠난 세계이다.

석전은 이러한 생각으로 현재 자신의 인생을 구분 지어가며 그 구분의 한계 안에서 사유하는 것을 뛰어넘어 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점은 관념상으로 경계를 여윈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 수준이 진정 그러한 경지에 도달했느냐의 문제이다. 이러한 수준에 도달한다면 그 세계의 진면목을 보기 때문에 언어적 경계는 허물어지고 ‘인생에 필요가 없다는 곳에 필요가 있다’ 혹은 ‘인생에 필요가 있는

51) 石顛山人, 『石林閑話-佛敎가 人生에 必要한 것이요 【上】』, 『동명』 제9호, 1922. 10.29, 13쪽, “答, 向上으로 觀하면, 人生은 自然生이라하는 것이 마치 『桃紅李白 薔薇紫를 問著東君自不知』라는 詩와가티, 佛敎와에 何關이리까 是故로 佛과 佛敎와 名相이 空諸하여야, 眞佛이 現前하는것이오, 그를 諳하 人生의 必要가 업다는 곳에 必要가 있다 합니다. 然則問家의 意旨는 形骸即物質에만 在하거니와, 物質을 眈나서 無佛과 有佛을 達觀하면, 前念後念이 那處에 摸着 하리까?”

곳에 필요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단순히 말의 표현을 따라가서는 석전이 나타내고자 하는 뜻을 밝힐 수 없다. 언어 너머의 이치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그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석전은 독자에게 『동명』의 첫 연재 글에서 자신의 글을 볼 때에는 정신적으로 한가하고 고요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⁵²⁾고 내면의 성찰의 자세를 당부한 것이다.

하근기로 답하는 부분은 상근기로 답하는 부분보다 좀 더 구체적이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괴로움과 즐거움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괴로워하고 즐거워함을 끊임없이 반복하는데, 석전은 문명이 점점 높아질수록 이와 같이 죽음과 괴로움을 부르짖는 소리가 더욱 커지고 맹렬해진다고 한다. 또한 근대화를 통해서 물질적 수준이 높아졌다 하더라도 삶과 죽음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사람은 누구나 정신적 안정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정신적 위안을 줄 만한 큰 스승을 요구하게 된다고 한다. 석전은 이러한 문제를 불교에서 이미 말하고 있다고 하면서 경계에 부는 바람이 스스로 일어나고 스스로 없어지는 것은 바람과 바다가 만났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지 바다의 본성과는 관련이 없는 것임을 인생살이에 비유한다.⁵³⁾ 곧, 사람들이 이러한 진여(眞如)의 이치를 알

52) 石顛山人, 「石林閑話-如何是佛인가 【上】」, 『동명』 제5호, 1922.10.1, 10쪽, “이 글 原題를 보실 間時에 現前에 熾然하든 戀愛國이라든지, 攘亂한 殺伐機라든지, 또한 拜金熱과 殉名風과 가튼 것을 暫間만 休歇하고, 一條白練의 活路로 視線을 돌리며 音波를 가르쳐서, 六窓을 虛閉케한 然後에 이 말씀을 傾聽하셔야 될 것이며, 이 글월을 玩味하셔야 쓸 것입니다.”

53) 石顛山人, 「石林閑話-佛敎가 人生에 必要한 것이요 【上】」, 『동명』 제9호, 1922. 10.29, 13쪽, “向下로 말씀하면 (….) 不然하야 衆生의 生死海에, 苦樂波浪이 暫息할 間隙이 無한 것은 日甚一日하야, 所謂文明風潮가 漸進漸高 할수록, 吽死하는 소리와 吽苦하는 바람이 더욱 博大하며 더욱 猛烈한지라, 慰安을 줄 만한 大導師를 要求하러하며, 自心上에 業火를 熄滅코져 希望할진대, 眞正한 宗教를 信念할 것인데, 『境風之自起自滅이 本不關於性海』라는 親切指導는 佛敎에 已言하였스니 (….) 無佛과 有佛과는 換言하면 不覺과 覺悟와란 것이니. 不覺하고 醉生夢死한

면 괴로움과 즐거움의 물결이 자신의 본성과는 관계가 없음을 알게 되는데, 석전은 깨달음을 이룬 삶, ‘본래자아’를 발견하며 살아가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세간에서의 삶은 본래자아를 찾지 않고 외부 상황과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다. 출세간의 삶은 외부적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내면적 성찰을 통해 본래자아를 발견하여 자연현상에 두루 계합하며 인간이 만들어낸 관념까지도 관통하면서 자유롭고 주체적으로 사는 것을 말한다. 석전은 이 중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는 개인 스스로가 결정할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⁵⁴⁾ 위에서 언급한 언어적 구분을 넘어선 지점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다면 출세간은 세간의 삶을 버려야만 얻는 이분법적으로 구분되는 세계가 아니다. 세간에서 삶을 살아가면서도 출세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세계가 있다. 그것은 세간에서 살면서 ‘본래자아’를 찾고 그러한 자아의 의지대로 살아감으로서 구현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정신적인 깨달음만을 부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부처라면 그에 알맞은 실천적 행위가 따라야 함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환언하면 본래자아를 찾았으면 그 깨달음에서 머무는 것만이 아니라, 자아가 지금 서 있는 그 공간에서의 실천적 행위가 따라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 때문에 석전은 당시의 근대화를 비판만 하는 입장에 서지 않는다.

3.3. 조선불교의 근대화에 대한 비판적 시선

석전은 조선의 근대화를 날카롭게 자각하고 있었던 인물 중 한 사람이

다 하면, 草木禽獸와 人生과가 무엇이 다르리까?”

54) 石顛山人, 『佛敎가 人生에 必要한 것이요 【下】 三.世間과 出世』, 『동명』 제13호, 1922. 11.26, 6쪽, “此世間에서, 掘泥揚波하고, 爾我를 競爭하고서 그대로 生活하는 것이 必要할는지, 此世間の 虎角春氷을 超脫하여, 平穩한 蓮華藏光明中에, 得入安命하는 것이 必要할는지, 滄寂한 雪後夜에, 참으로, 主人公과 談辦할 公案이지요.”

다. 그는 『동명』에서 근대화를 사상적 측면과 더불어 실행적 측면을 다루고 있다. 사상적 측면에서는 당시 유입된 서양사조와 불교 논리를 대조·비교의 방법을 통해 서술하고 있다. 실천적 측면에서는 조선, 특히 불교계에서 근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근대화 과정을 이루고 있는지를 비판과 경계의 시선으로 서술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담론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하기 때문에 두 가지 유형 중에서 실천적 부분을 다루고자 한다.

석전은 당시 조선·중국·일본의 불교계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면서,⁵⁵⁾ 각국에 근대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근대화 이전부터 있었던 불교가 현재는 어떤 상황인지를 대략적으로 보여준다. 중국 총림의 상황은 ‘계율과 질서를 지키지 않고 편안하고 한가롭다’(放逸安閒)고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다. 세 나라 중에서 먼저 근대화를 받아들인 일본은 근대화를 계기로 자신의 총림이 동방불교의 모범이 되는 곳이라 부르고 있고, 조선은 산속에 있었던 사찰이 새로운 풍조의 자격으로 도회지에 생기고, 불교를 배우는 사람들을 일본으로 유학을 보낸다고 한다.

근대화는 조선과 일본의 불교계에 위와 같은 변화를 가져온다. 그러나 석전은 일본과 조선 총림의 이러한 변화에 비판적 자세를 보인다. 일본은 겉모습만 부처님의 광명이 드러난 것처럼 보일 뿐 그 내부는 여전히 정부

55) 石顛山人, 『石林閑話-如何是佛인가【下】』, 『동명』 제7호, 10.15, 13쪽, “支那叢林의 情況은 往來人의 口傳을 듯드래도, 多言을 不須하고 鬼窟裏에서 放逸安閒할 뿐이오, 日本의 叢林은 東方佛敎의 首善地라 稱하여, 外式은 佛光을 發揮한 것 가트나, 內慕인 즉 아즉도 當局官僚에 依賴慣習을 未脫하고 薦膺祈福의 餘瀝에 만 垂涎하여 活佛敎의 事業은 夢未見在하는 著書까지 得見하였습니다. 더구나 朝鮮의 叢林은 數百年 동안 沈廢한 餘에, 十數年近間에 新風潮刺激으로, 敎堂도 都會地에 建設하여 旗脚에 風動하고, 新學徒를 拔遣하고 玄灘과 江戶間에 帽影이 婆娑한 즉, 佛陀는 今朝에 靑丘를 向하시어 毫光을 重放하실 것 가트나, 其內인 즉 不然하여, 『壽陵餘子가 邯鄲步를 배우는 景況』과 틀림업습니다. 開放이니 할, 佛祖의 本色되는 戒律만 開放하고, 智識과 德業은 돌리어 壅滯치 안는가하는, 感想이 油然히 發生합니다. 그러한 즉 如何한 것이 이 부터인가하는 感嘆이올시다.” 조선·중국·일본의 불교계에 대한 비판은 이 인용문을 이용함을 밝힌다.

관료에게 의존하고, 기복적 신앙에서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조선 총림 또한 근대화로 인한 변화는 외형적 변화와 내부적 변화가 발전된 방향으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조선불교의 근대화는 개방하지 말고 지켜야 할 부처의 계율은 속박을 풀어서 자유롭게 하고, 두루 통하여 자재해야 할 부처의 지식과 덕업(德業)은 오히려 막혀 정체되었다는 것이다.

조선의 근대화는 스스로의 동력에 의해서 이뤄졌기보다는 일본·서양 등에 의해서 이뤄졌다. 석전은 외부적 동력에 의해서 이뤄진 조선불교의 근대화가 자국의 실정과 상황에 맞게 취할 것과 취하지 말아야 할 것, 지켜야 할 것과 변화시켜야 할 것을 주체적으로 받아들여 발전시키지 못하고 말단에만 매달려 변화시키고 있음을 비판하고 있다. 그래서 석전은 조선 총림의 근대화는 연나라 젊은이가 한단에 가서 그곳 사람들의 걸음 걸이를 배우다가 자기 나라에 돌아올 때에는 한단에서 배운 걸음걸이도 되지 않고, 본래의 걸음마저 잊어 기어서 돌아오는 상황과 같게 되어 버린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석전은 변화시켜야 할 것과 변화시키지 말아야 할 것을 반대로 행하고 있는 조선불교의 근대화 과정을 보면서 이런 식으로 근대화가 이뤄지면 어떠한 폐해가 발생하는지를 산운(山雲) 이양연(李亮淵, 1771~1853)의 「탁목」(啄木)을 인용하여 언급한다.⁵⁶⁾ 딱따구리가 나무를 쪼는 상황을 조선 총림의 상황에 비유하고, 반 밖에 남지 않은 나무가 계속 쪼이면 결국 딱따구리도 살 곳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상황을 조선 총림의 근대화 결과에 비유하고 있다. 석전은 이와 같은 식으로 근대화를 계속 진행하다가는 결국 조선의 불교도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석전은 근대화가 모든 방면에서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것을 경

56) 石顛山人, 「石林閑話-如何是佛인가【下】」, 『동명』 제7호, 1922. 10.15, 13쪽, “李山雲의 絶句詩가 생각납니다. 「啄木은 休啄木하라, 古木이 餘半腹을 風雨를 寧不憂아, 木摧하면 爾無屋을」. 山雲은 寓意가 有在하지마는, 石人은 우리 叢林을 向하여 다시금 을프려합니다.”

계하고, 지켜야 할 것과 변화해야 할 것을 구분하여 적절하게 근대화가 이뤄져야 함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다.

4. 맺는말

『동명』은 1920년대 시대적 상황과 사상적 흐름인 민족개조론과 인류개조론, 사회주의사상을 반영하면서 문예방면으로는 창작소설과 창작시, 다양한 장르의 외국문학을 번역하여 게재하는 등 1920년대 초반 종합잡지를 표방한다. 이러한 잡지의 구성에 불교적 세계관 아래서 사유하는 석전의 글이 들어온다. 당시 시대의 흐름을 선도하며 신지식과 신문물을 받아들이는 잡지라는 매체와 철저히 불교적 세계관 아래에서 사유하는 석전이라는 글쓴이의 특징, 그리고 특정 종교 색채를 갖지 않는 독자, 이 구도는 다른 잡지에서는 보기 힘든 배치이다. 이러한 점을 본고는 주목하여 당시 유행하고 있었던 보편적인 인식과는 결을 달리하는 근대화에 대한 시선을 도출해내고자 하였다.

『동명』을 중심으로 한 당시 조선 지식인들은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는데 앞서 필요한 것은 조선인의 민족성을 개조하는 일이라고 보았다. 민족성은 개인의 차원에서 개조하는 것만이 아니라 민족의 차원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하며, 이것은 ‘인류 개조’로 나아가는 발판임을 역설하고 있다. 그러나 석전은 개인의 ‘무엇이 부처인가’라는 물음을 통해서 ‘본래자아’를 발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본래자아’를 발견하는 과정은 외부문물을 통해서 이뤄지는 것이 아닌 개인의 사유를 바탕으로 이뤄지는데 석전은 개인의 사유 능력으로 찾아가는 ‘본래자아’의 발견을 중요시하고 있는 것이다.

석전은 ‘본래자아’의 발견이라는 정신적 깨달음만을 부처로 본 것은

아니다. 부처라면 그에 알맞은 실천적 행위가 따라야 함을 말하고 있다. 부처가 행한 일련의 일들을 계(戒)·정(定)·혜(慧) 삼학(三學), 나아가 육도만행(六度萬行)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개인이 생활하고 있는 그곳에서 이러한 실천을 행할 수 있어야 함을 역설한다.⁵⁷⁾ 실천적 측면은 삶의 현장에서 이뤄진다. 살아가기 위해서는 당시 유통하고 있었던 신문물이나 신지식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석전은 근대화를 무조건 비판하지 않는다. 다만 그가 문제 삼는 것은 근대화를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수용하는가의 문제였다. 석전은 근대매체인 신문·잡지의 역할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자세를 보이며, 세계사조가 유입되고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신문과 잡지를 읽으라고 권하고 있다.⁵⁸⁾ 신문·잡지는 그러한 변화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본래자아’를 발견하여 주체적으로 사유할 수 있도록 정신적 수준을 끌어 올리고, 그러한 수준에서 근대화를 주체적 수용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것은 당시 개조론의 흐름과는 다른 지류로 불교적 시선과 근대화의 만남이 창출해낸 근대의 한 유형이라 할 수 있다.

57) 石頭山人, 『石林閑話-如何是佛인가【下】』, 『동명』 제7호, 1922. 10.15, 12쪽, “佛陀가 佛陀되신 것을, 高遠難行에서 求할 必要가 업고, 日用事行의 親切處에 求하는 것이 適當하것습니다. 그의 事行을 概括하면 戒定慧三學이오, 廣推하면 卽, 六度萬行이라하는것입니다. (….) 然則, 相好와 光明과 神變不測이 佛陀의 本懷가 아 니오, 實際로 大智慧와 大慈悲와 大勇勤이 佛陀의 本懷인 外답에, 永遠한 萬世間에 서 佛陀라 하면 稽首崇拜함이 감히 來由가 있스니다.”

58) 石頭山人, 『春言』, 『동명』 제2권 제2호, 1923.01.7, 7쪽, “여보시오 兄弟분 (….) 世界思潮가 崑崙崑崑히 巖險하든 喬岳이 平地가 되려하고 깊숙한 巨壑이 桑田으로 變하려한다 몇 사람의 頭腦가 흔들리며 몇 사람의 血淚가 斑斑한가 날마다 卍도는 新聞週報 月刊의 雜誌 좀 보아 주었스면 東西現狀은 어찌 되었스며 將來는 어찌 될 것인가.”

참고문헌

- 『동명』 1호~17호, 2권 1호~2권 23호.
- 권보드래(2009), 「진화론의 갱생, 인류의 탄생: 1910년대의 인식론적 전환과 3·1운동」, 『대동문화연구』 66집,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 김봉희(2008), 「일제시대의 출판문화: 종합잡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연구』 14집,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 김상일(2007), 「석전(石顛) 박한영(朴漢永)의 저술 성향과 근대불교학적 의의」, 『불교학보』 46집,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 김화선, 안미영(2007), 「1920년대 서구 전래동화의 번역과 번역 주체의 욕망: 『東明』에 소개된 그림동화를 중심으로」, 『語文研究』 53집, 어문연구학회.
- 동신(2011), 「양건식의 중국 문학 연구에 대한 비교문화적 고찰: 중국 속문학의 연구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류시현(2005), 「崔南善의 ‘近代’ 認識과 ‘朝鮮學’ 研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류시현(2007), 「1920년대 최남선의 ‘조선학’ 연구와 민족성 논의」, 『역사문제연구』 17집, 한국역사연구회.
- 서은경(2013), 「잡지 『서울』 연구: 1920년대 개조론의 대세 속 『서울』 창간의 배경과 그 성격을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46집, 우리어문학회.
- 이경돈(2005), 「1920년대초 민족의식의 전환과 미디어의 역할: 『개벽』과 『동명』을 중심으로」, 『史林』 23집, 수선사학회.
- 이병주 외(2012), 『석전 박한영의 생애와 시문학』, 도서출판 선운사.
- 이철호(2006), 「한국 근대문학의 형성과 종교적 자아 담론: 靈, 生命, 新人 담론의 전개 양상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덕교(2004), 『한국잡지백년(韓國雜誌百年)』 2, 현암사.

원고 접수일: 2013년 10월 31일

심사 완료일: 2013년 11월 26일

게재 확정일: 2013년 12월 3일

ABSTRACT

The composition of *DongMyung* and
Sukjun Park Han Yeong's "SukRimHanHwa"

Min, HeeJoo

This article will look at the overall composition of *DongMyung*, a magazine from the early 1920s and through Sukjun Park Han Yeong's article from this magazine we will try to find a sketch of the creation of the modern age from a Buddhist perspective. First, we will look at how *DongMyung* tried to establish the state of the 1920s and how it distinguished the changes that occurred from five perspectives: the people, origination, current affairs, new knowledge, and literature. Through this we can see that while the 1920s introduction of ethics and the study of the reconstruction of humanity was popular and the inflow of socialism was vigorous, *DongMyung* handled articles about the tendencies of that time.

The concept of the magazine was affected by Sukjun's article of his Buddhist view of the world. Taking lead of the current flow of the time, magazines tried to take in new knowledge and new culture as a medium, and Sukjun's thorough Buddhist view of the world as a writer was characteristic as well as having the reader being irrelevant to a certain color of

any religion. This composition was hard to see in any other magazine. We can guess the possibility of the magazine's viewpoint by showing modernization from a perspective different to that of the universal perception of the time. In this perspective Sukjun states that through introspection with the foundation of the Buddhist speculation system we can take action against modernization. Furthermore, he states that it is an indicator of 'how we should live'. He criticizes and warns against modernism as well as acceptance of it. This action of maintaining the position of a Buddhist and independently accepting modernism shows an aspect of his character.

